

영·호남 서사민요의 소통과 경계 :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전승적 특질 비교*

서영숙**

<차 례>

1. 머리말
2. 전승분포에 나타나는 소통과 경계
3. 유형구조에 나타나는 소통과 경계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평민여성들의 서사민요가 집중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영·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서사민요의 전승분포 양상과 유형구조적 특성을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비교 고찰하였다. 그 결과 영·호남 서사민요는 인접 지역 간에 서로 소통하면서도 일부 유형의 경우 뚜렷한 경계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색을 형성 전승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활발하게 전승되는 광포유형으로는 Ba 베짜며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 Bc 진주낭군이 기생첩과 놀자 자살하는 아내, Ia 장식품 잃어버린 처녀에게 구애하는 총각 유형을 들 수 있다. 다음 두 지역의 지역유형으로는, 영남에서는 Ea 오빠에게 부정을 의심받은 동생과 Gb 여자의 저주로 죽은 신랑 유형을, 호남에서는 Ad 그릇 깨뜨린 며느리, Ae 시집식구가 병어리라고 쫓아내자 노래 부른 며느리, Ag 시누가 옷을 찢자 항의하는 며느리, Ha 외간남자의 옷이 찢기자 꺾매주는 여자 유형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영남에서는 처녀가 부정을 의심받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32-A00113)

** 한남대학교

거나 처녀가 남자를 저주하는 등 처녀의 구애와 사랑에 관한 노래가 많이 불린다고 한다면, 호남에서는 혼인한 여자가 겪는 고난이나 외간남자와 관련된 부적절한 사랑에 관한 노래가 많이 불린다. 두 지역 서사민요 중 Ad 그릇 깨뜨린 며느리, Cb 친정부모 장례에 가는 딸, Ea 오빠에게 부정을 의심받은 동생, Gb 여자의 저주로 죽는 신랑 유형의 구조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호남에서는 핵심단락 위주의 단편적 구조를 보이는 데 비해, 영남에서는 부수단락이 다양하게 결합해 장편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핵심어 : 서사민요, 영남, 호남, 전승양상, 유형, 하위유형, 광포유형, 지역유형, 핵심단락, 부수단락

1. 머리말

영남과 호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서사민요가 가장 풍부하게 전승되는 지역이다.¹⁾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지역에 어떤 유형의 서사민요가 얼마나 많이 전승되며 양 지역 서사민요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 가장 기본적인 의문점들조차 거의 연구된 바 없다. 그러므로 서사민요 연구에 있어서 영·호남 지역은 서사민요의 본체를 드러내기 위한 중심 지역으로서, 전국 서사민요의 실상을 밝히기 위해 우선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한국의 서사민요 중 특히 서사민요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영남과 호남 지역 서사민요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지역 서사민요의 전승적 특질을 비교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호남 지역의 문화는 한민족 문화의 동질성 아래, 오랜 세월 동안 정

1) 필자가 『한국구비문학대계』와 『한국민요대전』에서 서사민요를 추출해본 결과 영남 644편, 호남 313편, 충청 95편, 서울·경기 5편, 강원 44편, 제주 27편으로, 영남과 호남 지역의 서사민요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치적·사회적·문화적 이질성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두 지역의 문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공유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를 지니는지에 대한 활발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두 지역의 문화적 차이를 거칠게 비교해 본다면 영남은 주로 규방가사와 소설을 중심으로 한 음영 예술이 발달했다고 한다면 호남은 민요와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 가창 예술이 발달했다고 할 수 있다. 기층민의 예술로는 영남은 민속극이, 호남은 판소리가 대표적인 예술로 손꼽힌다.²⁾ 그러나 서사민요는 두 지역 모두 선후를 가릴 수 없을 만큼 풍부하게 발달했다. 이는 두 지역의 문화적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기층민, 특히 주 향유층인 기층 여성들의 공통 생활기반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에만 발달한 서사민요의 유형이 있는가 하면, 호남에만 발달한 서사민요의 유형이 있고, 같은 유형이라도 영남과 호남 지역 서사민요 향유층이 택한 모티프와 결말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지역 기층 여성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지역의 문화적 특질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서사민요가 가장 집중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영·호남 지역을 택하여 두 지역에는 어떤 유형의 서사민요가 전승되고 있는지를 필자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파악함으로써 두 지역 서사민요의 전승분포 양상을 비교 분석하려고 한다.³⁾ 또한 영·호남 지역 서사민요에

2) 최정락, 「영·호남 문학의 특성 고찰: 양 지역 조선조 문학의 대비를 통한」, 『어문학』 50, 한국어문학회, 1989, 301-302쪽 참조. 최정락은 영남의 문학 중 퇴계·노계의 시가, 규방가사, 탈춤, 호남의 문학 중 송강·고산의 시가, 판소리를 택해 비교한 결과, 영남의 문학이 서정지향성, 집단이념 중시, 사회악을 만드는 전형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면, 호남의 문학은 서사지향성, 개인정서 중시, 사회의 모순구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3) 분석 대상 자료는 『한국구비문학대계』5-1~5-7(전북), 6-1~6-12(전남), 7-1~7-18(경북), 8-1~8-14(경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9; 『한국민요대전』경남편, 경북편, 전남편, 전북편(주)문화방송, 1993-1995; 김익두, 『전북의 민요』, 전북애향운동본부, 1989; 지춘상, 『전남의 민요』, 전라남도, 1988; 조희웅·조홍욱·조재현 편, 『호남구전자료집』 1~8, 도서출판 박이정, 2010을 주자료로 하고, 조동일, 『서사민요연구』, 계명대 출판부, 1979(증보판) 소재 자료와 줄거 『한

나타난 서사전개 양상을 토대로 양 지역 서사민요의 유형구조적 특성을 고찰할 것이다. 이는 영·호남 지역 서사민요의 지역적 특성과 향유층의 의식을 파악하는 데 기반이 될 것이다.⁴⁾

2. 전승분포에 나타나는 소통과 경계

영남과 호남은 서로 소백산맥과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경계를 이루고 있어, 오랜 세월 동안 정치적·역사적으로 별개의 연맹체와 국가를 형성해 왔다. 삼국 이전에는 마한과 진한으로, 삼국 이후에는 백제와 신라로 나뉘어져 서로 각축을 벌여 왔으며, 이러한 관계는 통일 국가를 이룬 이후에도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작용하여 왔다. 영남과 호남 사이에 놓여 있는 이러한 경계는 문화의 형성과 전승에도 작용해 영남과 호남의 지역문화는 서로 이질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두 지역의 문화가 완전히 고립된 단절의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두 지역은 모두 고려 시대 이후 정치의 중심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에 위치해 있으면서 중앙의 문화와는 구별되는 지역의 문화, 변방의 문화를 형성해 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다가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국서사민요의 낱실과 씨실: 우리 어머니들의 노래』, 도서출판 역락, 2009 소재 자료 등 개인 조사자료를 보조 자료로 한다. 필자가 이 연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화한 서사민요의 자료 수는 영남 지역 644편, 호남 지역 457편으로 총 1,101편에 해당한다.

- 4) 필자는 이 글을 쓰기 위한 전 단계 작업으로 줄고, 「영남 지역 서사민요의 전승적 특질: 호남 지역 서사민요와의 비교를 위하여」, 『고시가연구』 26, 한국고시가문학회, 2010에서 영남 지역 서사민요의 전승적 특질을 중점적으로 살피면서 호남 지역 서사민요와의 비교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글은 앞선 논문을 바탕으로 호남 지역 서사민요 자료 분석을 포함하여 영·호남 지역 서사민요의 전승적 특질을 본격적으로 비교한 논문으로 앞 논문과 차별성을 지닌다. 한편 이 글은 영·호남 지역 서사민요의 지역적 전승양상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내용적 특질이나 향유층의 의식 등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미루기로 한다.

영남과 호남의 서사민요가 전승되면서 지역적으로 어떠한 소통과 경계의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영남과 호남 지역의 문화권역을 각기 서부와 동부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⁵⁾ 이는 영남과 호남, 두 지역 모두 예전부터 현재의 행정적 경계인 남북보다는 자연적 지리적 경계인 동서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영남은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경상좌도(동부)와 경상우도(서부)로, 호남은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전라좌도(동부)와 전라우도(서부)로 나뉘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문화의 경계가 되어 왔다.⁶⁾

서사민요는 평민 여성들이 주 향유층으로서, 특히 호남과 영남 지역의 평민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불러왔다. 호남과 영남의 서사민요는 같은 평민 여성들이 부른 문학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두 지역의 이질적인 사회적·역사적 환경으로 인해 서로 간에 뚜렷하게 구별되는 전승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인접해있는 호남 동부와 영남 서부의 서사민요 간에는 비슷한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서사민요의 전승분포 양상을 지역별로 서사민요 유형이 전승되고 있는 비율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필자가 대상으로 한 서사민요 자료를 지역별, 유형

5) 권오경은 영남 민요권을 우선 영남우도와 영남좌도로 나눈 뒤 다시 영남 우도는 경북 서부권, 경남 서부권, 경남 남해권, 영남 좌도는 경북 북부권, 경북 중부권, 경남북 동해권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영남과 호남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세분하지 않고 영남과 호남 각기 동부와 서부로 구분하기로 한다. 권오경, 「영남민요의 전승과 특질」, 『우리말글』 25, 우리말글학회, 2002, 217-241쪽; 「영남권 민요의 전승과 특질 연구: 전이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29, 우리말글학회, 2003, 213-245쪽 참조.

6) 경상좌도와 경상우도, 전라좌도와 전라우도는 현재의 행정구역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영남 동부] 영주, 예천, 안동, 의성, 군위, 칠곡, 대구, 경산, 울진, 봉화, 영양, 영덕, 청송, 포항, 영천, 경주, 청도, 창녕, 밀양, 양산, 울산 [영남 서부] 문경, 상주, 구미, 김천, 성주, 거창, 합천, 함양, 산청, 의령, 진주, 하동, 사천, 남해, 함안, 창원, 마산, 고성, 통영, 거제, 진해, 김해 [호남 동부]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 구례, 곡성, 담양, 화순, 광양, 순천, 보성, 여수, 고흥 [호남 서부] 완주, 전주, 익산, 군산, 김제, 부안, 정읍, 고창, 장성, 광주, 영광, 함평, 나주, 무안, 영암, 장흥, 영암, 무안, 목포, 신안, 진도, 해남, 강진, 완도.

별로 나누어 조사된 자료수와 지역별 비중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⁷⁾

유형	호남 서부	영남 동부	호남 소계	영남 서부	영남 동부	영남 소계
Aa 중이 되는 며느리	5 (1.77%)	7 (4.02%)	12 (2.63%)	22 (5.66%)	12 (4.71%)	34 (5.28%)
Ab 시집식구로 인해 죽는 며느리	17 (6.01%)	8 (4.60%)	25 (5.47%)	3 (0.77%)	0 (0%)	3 (0.47%)
Ac 시집식구가 구박하자 한탄하는 며느리	13 (4.59%)	9 (5.17%)	22 (4.81%)	6 (1.54%)	3 (1.18%)	9(1.40 %)
Ad 그릇 깨뜨린 며느리	11 (3.89%)	2 (1.15%)	13 (2.84%)	13 (3.34%)	0 (0%)	13(2.02 %)
Ae 말을 안해 쫓아내자 노래부른 며느리	3 (1.06%)	3 (1.72%)	6 (1.31%)	1 (0.26%)	0 (0%)	1 (0.16%)
Af 과일 따먹다 들킨 며느리	1 (0.35%)	0 (0%)	1 (0.22%)	4 (1.03%)	0 (0%)	4 (0.62%)
Ag 시누가 옷을 찢자 항의하는 며느리	8 (2.83%)	3 (1.72%)	11 (2.41%)	5 (1.29%)	2 (0.78%)	7 (1.09%)
Ah 사촌형님이 밥해주지 않자 항의하는 사촌동생	11 (3.89%)	10 (5.75%)	21 (4.60%)	0 (0%)	0 (0%)	0 (0%)
Ai 사촌형님에게 시집살이 호소하는 사촌동생	2 (0.71%)	1 (0.57%)	3 (0.66%)	4 (1.03%)	14 (5.49%)	18 (2.80%)
Ba 베 짜며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	19 (6.71%)	13 (7.47%)	32 (7.00%)	58 (14.91%)	48 (18.82 %)	106 (16.46 %)

7) 참고, 앞의 논문, 2010, 211-216쪽에서 영남 지역 서사민요의 권역을 북서부, 남부, 북동부로 나누어 지역별 서사민요의 분포표를 당시 조사된 호남 지역 자료수와 함께 제시한 바 있으나, 이 글에서는 영남과 호남 모두 자료를 확충하고 유형을 조절했으며, 두 지역 간의 소통 양상을 살피기 위해 각기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 재분석하였기 때문에 보완 수정된 표를 다시 제시한다.

Bb 남편이 기생첩과 놀며 모른체하자 자살하는 아내	0 (0%)	1 (0.57%)	1 (0.22%)	0 (0%)	0 (0%)	0 (0%)
Bc 진주낭군이 기생첩과 놀자 자살하는 아내	15 (5.30%)	8 (4.60%)	23 (5.03%)	19 (4.88%)	16 (6.27%)	35 (5.43%)
Bd 길에서 만난 남편이 몰라보자 한탄하는 아내	0 (0%)	1 (0.57%)	1 (0.22%)	0 (0%)	0 (0%)	0 (0%)
Be 남편에게 편지하나 오지 않자 한탄하는 아내	3 (1.06%)	0 (0%)	3 (0.66%)	0 (0%)	0 (0%)	0 (0%)
Bg 집나갔던 아내가 붙잡자 뿌리치는 남편	0 (0%)	0 (0%)	0 (0%)	2 (0.51%)	0 (0%)	2 (0.31%)
Ca 어머니 묘를 찾아가는 딸	17 (6.01%)	5 (2.87%)	22 (4.81%)	3 (0.77%)	5 (1.96%)	8 (1.24%)
Cb 친정부모 장례에 가는 딸	8 (2.83%)	12 (6.90%)	20 (4.38%)	9 (2.31%)	5 (1.96%)	14 (2.17%)
Cc 딸의 시집살이를 한탄하는 친정식구	6 (2.12%)	1 (0.57%)	7 (1.53%)	0 (0%)	0 (0%)	0 (0%)
Da 계모로 인해 죽은 자식	0 (0%)	2 (1.15%)	2 (0.44%)	1 (0.26%)	1 (0.39%)	2 (0.31%)
Db 부모와 이별하고 전쟁에 나간 자식	3 (1.06%)	2 (1.15%)	5 (1.09%)	3 (0.77%)	0 (0%)	3 (0.47%)
Ea 오빠에게 부정을 의심받은 동생	1 (0.35%)	6 (3.45%)	7 (1.53%)	33 (8.48%)	30 (11.76%)	63 (9.78%)
Eb 오빠가 물에서 구해주지 않자 한탄하는 동생	4 (1.41%)	4 (2.30%)	8 (1.75%)	13 (3.34%)	2 (0.78%)	15 (2.33%)
Fa-1 삼촌식구 구박받다	2 (0.71%)	0 (0%)	2 (0.44%)	3 (0.77%)	2 (0.78%)	5 (0.78%)

시집가나 신랑이죽은 조카						
Fa-2삼촌식구 구박받다 장가가나 신부가 죽은 조카	0 (0%)	0 (0%)	0 (0%)	2 (0.51%)	0 (0%)	2 (0.31%)
Fb 삼촌식구 구박받다 시집가나 신랑이 죽은 각시	0 (0%)	0 (0%)	0 (0%)	1 (0.26%)	0 (0%)	1 (0.16%)
Ga 혼인을 기다리다 죽은 신랑	5 (1.77%)	3 (1.72%)	8 (1.75%)	7 (1.80%)	1 (0.39%)	8 (1.24%)
Gb-1 처녀의 저주로 죽는 신랑	5 (1.77%)	4 (2.30%)	9 (1.97%)	12 (3.08%)	9 (3.53%)	21 (3.26%)
Gb-2 본처(자식)의 저주로 죽는 신랑	2 (0.71%)	0 (0%)	2 (0.44%)	8 (2.06%)	1 (0.39%)	9 (1.40%)
Gc 혼인을 기다리다 죽는 신부	3 (1.06%)	0 (0%)	3 (0.66%)	6 (1.54%)	3 (1.18%)	9 (1.40%)
Gd 혼인날 애기를 낳은 신부	7 (2.47%)	5 (2.87%)	12 (2.63%)	3 (0.77%)	3 (1.18%)	6 (0.93%)
Ge 혼인날 방해를 물리치고 첫날밤을 치르는 신랑	3 (1.06%)	1 (0.57%)	4 (0.88%)	8 (2.06%)	2 (0.78%)	10 (1.55%)
Gf 신랑이 성불구이자 중이 되는 신부	1 (0.35%)	0 (0%)	1 (0.22%)	1 (0.26%)	0 (0%)	1 (0.16%)
Ha 외간남자의 옷이 찢기자 퀘매주는 여자	12 (4.24%)	4 (2.30%)	16 (3.50%)	2 (0.51%)	3 (1.18%)	5 (0.78%)
Hb 외간남자와 정 통하다 남편에게 들킨 여자	1 (0.35%)	0 (0%)	1 (0.22%)	0 (0%)	4 (1.57%)	4 (0.62%)
Hc 주머니를 지어 걸어 놓고	3 (1.06%)	7 (4.02%)	10 (2.19%)	14 (3.60%)	9 (3.53%)	23 (3.57%)

남자 유혹하는 처녀						
Hd 중이 유혹하자 거절하는 여자	6 (2.12%)	3 (1.72%)	9 (1.97%)	0 (0%)	1 (0.39%)	1 (0.16%)
He 중에게 시주한 뒤 쫓겨나는 여자	4 (1.41%)	0 (0%)	4 (0.88%)	4 (1.03%)	0 (0%)	4 (0.62%)
Hg 장사가 자고간 뒤 그리워하는 과부	0 (0%)	2 (1.15%)	2 (0.44%)	1 (0.26%)	2 (0.78%)	3 (0.47%)
Ia 장식품 잃어버린 처녀에게 구애하는 총각	10 (3.53%)	8 (4.60%)	18 (3.94%)	22 (5.66%)	11 (4.31%)	33 (5.12%)
Ib 일하는 처녀에게 구애하는 총각	7 (2.47%)	7 (4.02%)	14 (3.06%)	18 (4.63%)	0 (0%)	18 (2.80%)
Ic-1 처녀를 짝사랑하다 죽는 총각	2 (0.71%)	7 (4.02%)	9 (1.97%)	9 (2.31%)	1 (0.39%)	10 (1.55%)
Ic-2 사모하는 총각을 중이 돼 찾아가 혼인하는 처녀	0 (0%)	0 (0%)	0 (0%)	3 (0.77%)	0 (0%)	3 (0.47%)
Id 나물캐다 사랑을 나누는 총각과 처녀	1 (0.35%)	1 (0.57%)	2 (0.44%)	9 (2.31%)	8 (3.14%)	17 (2.64%)
Ie 총각이 어머니를 통해 청혼하자 받아들이는 처녀	0 (0%)	0 (0%)	0 (0%)	1 (0.26%)	1 (0.39%)	2 (0.31%)
If 담배를 키워 피우며 청혼하는 총각	12 (4.24%)	0 (0%)	12 (2.63%)	5 (1.29%)	3 (1.18%)	8 (1.24%)
Ja 첩의 집에 찾아가는 본처	7 (2.47%)	2 (1.15%)	9 (1.97%)	9 (2.31%)	4 (1.57%)	13 (2.02%)
Jb 첩으로 인해 한탄하는 본처	0 (0%)	0 (0%)	0 (0%)	3 (0.77%)	1 (0.39%)	4 (0.62%)

Jc 첩이 죽자 기뻐하는 본처	3 (1.06%)	1 (0.57%)	4 (0.88%)	0 (0%)	0 (0%)	0 (0%)
Jd 본처가 죽자 기뻐하는 첩	0 (0%)	0 (0%)	0 (0%)	1 (0.26%)	0 (0%)	1 (0.16%)
Ka 자형에게 항의하는 처남	0 (0%)	2 (1.15%)	2 (0.44%)	8 (2.06%)	0 (0%)	8 (1.24%)
Kb 장인장모를 깔보는 사위	0 (0%)	1 (0.57%)	1 (0.22%)	2 (0.51%)	0 (0%)	2 (0.31%)
La 저승사자가 데리러오자 한탄하는 사람	1 (0.35%)	3 (1.72%)	4 (0.88%)	3 (0.77%)	5 (1.96%)	8 (1.24%)
Lb 메밀음식 만들어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여자	5 (1.77%)	2 (1.15%)	7 (1.53%)	10 (2.57%)	10 (3.92%)	20 (3.11%)
Lc 나물반찬 만들어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여자	3 (1.06%)	1 (0.57%)	4 (0.88%)	2 (0.51%)	2 (0.78%)	4 (0.62%)
Ma 자식이 없자 곤충을 자식으로 여긴 여자	0 (0%)	0 (0%)	0 (0%)	3 (0.77%)	3 (1.18%)	6 (0.93%)
Mb 쥐가 남긴 밤을 아이와 나눠먹는 사람	7 (2.47%)	3 (1.72%)	10 (2.19%)	8 (2.06%)	22 (8.63%)	30 (4.66%)
Mc 사람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소	4 (1.41%)	3 (1.72%)	7 (1.53%)	2 (0.51%)	0 (0%)	2 (0.31%)
Md 사람에게 잡힌 동물	10 (3.53%)	4 (2.30%)	14 (3.06%)	0 (0%)	3 (1.18%)	3 (0.47%)
Na 장끼가 콩 주워 먹고 죽자 한탄하는 까투리	10 (3.53%)	2 (1.15%)	12 (2.63%)	0 (0%)	3 (1.18%)	3 (0.47%)
총계	283	174	457	389	255	644

영남과 호남에서 전승되는 서사민요는 모두 56개 유형이다.⁸⁾ 영남에서

8) 졸저, 앞의 책, 2009, 51-54쪽에서 64개 유형을 제시한 바 있으나, 영·호남 지역

는 이중 51개 유형이, 호남에서는 50개 유형이 전승된다. 두 지역에서 모두 활발하게 전승되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에서만 활발하게 전승되는 유형도 있다.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활발하게 전승되는 유형을 알기 위해 두 지역 모두 3% 이상 전승되는 유형을 들면 다음과 같다.⁹⁾

유형	호남	영남
Ba 베짜며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	32(7.00%)	106(16.46%)
Bc 진주낭군이 기생첩과 놀자 자살하는 아내	23(5.03%)	35(5.43%)
Ia 장식품 잃어버린 처녀에게 구애하는 총각	18(3.94%)	33(5.12%)

이 세 유형은 서사민요의 대표적 유형으로 영남과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광포유형’일 가능성이 있다.¹⁰⁾ 이중에서 Ba 베짜며 기다리던 남편이 죽자 한탄하는 아내 유형이 두 지역에서 모두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이는 서사민요가 길쌈노동요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Ba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향유자들뿐만 아니라 조사자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노래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특히 영남 동부에서는 조사된 서사민요 중 Ba 유형이 16.46%를 차지하고 있어서, 영남 동부가 다른 서사민요 유형보다도 이 유형을 집중적으로 향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a 유형은 베짜는 과정을 길게 서술할 뿐만 아니라 주인공과 상대인물 간의 갈등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유형으로서, 살림살이에 관련된 교술적 서사민요가 많이 전승되는 영남

자료 검토를 통해 조정한 결과이다. 앞으로 전국 자료로 확대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9) 각 유형이 지역 서사민요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조사된 서사민요의 수가 다르므로 지역별로 조사된 서사민요 수에 대한 각 유형에 속하는 각편 수의 비율을 구해 비교하기로 한다. 서사민요의 유형명과 기호는 필자가 주인공과 상대인물과의 관계에 의해 분류하고 명명한 것인데 이 글을 통해 몇 개 유형이 조절되었다. 출처, 앞의 책, 2009, 47-75쪽.

10) 참고, 앞의 논문, 2010, 219쪽에서는 Aa와 Bc 유형을 들었으나 결과가 약간 달라졌다. 경기, 강원, 제주 지역 등의 서사민요 자료가 모두 분석되어야 보다 분명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동부권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¹¹⁾

다음 어느 특정 지역에서는 활발하게 전승되나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유형을 알기 위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1.5배 이상의 비율로 전승되는 유형을 들면 다음과 같다.

유형	호남	영남
Aa 시집식구가 구박하자 중이 되는 며느리	12(2.63%)	34(5.28%)
Ab 시집식구가 구박하자 죽는 며느리	25(5.47%)	3(0.47%)
Ac 시집식구가 구박하자 한탄하는 며느리	22(4.81%)	9(1.40%)
Ae 시집식구가 병어리라고 쫓아내자 노래부른 며느리	6(1.31%)	1(0.16%)
Ag 시누가 옷을 찢자 항의하는 며느리	11(2.41%)	7(1.09%)
Ah 사촌형님이 밥을 해주지 않자 항의하는 사촌동생	21(4.60%)	0(0%)
Ai 사촌동생에게 시집살이 호소하는 사촌형님	3(0.66%)	18(2.80%)
Ba 베짜며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	32(7.00%)	106(16.46%)
Ca 어머니 묘를 찾아가는 딸	22(4.81%)	8(1.24%)
Cb 친정부모 장례에 가는 딸	20(4.38%)	14(2.17%)
Cc 딸의 시집살이를 한탄하는 친정식구	7(1.53%)	0(0%)
Db 부모와 이별하고 전쟁에 나간 자식	5(1.09%)	3(0.47%)
Ea 오빠에게 부정을 의심받은 동생	7(1.53%)	63(9.78%)
Gb-1 처녀의 저주로 죽은 신랑	9(1.97%)	21(3.26%)
Gb-2 본처(자식)의 저주로 죽는 신랑	2(0.44%)	9(1.40%)
Gc 혼인을 기다리다 죽는 신부	3(0.66%)	9(1.40%)
Gd 혼인날 애기를 낳은 신부	12(2.63%)	6(0.93%)
Ge 혼인날 방해를 물리치고 첫날밤을 치르는 신랑	4(0.88%)	10(1.55%)
Ha 외간남자의 옷이 찢기자 궤매주는 여자	16(3.50%)	5(0.78%)
Hd 중이 유혹하자 거절하는 여자	9(1.97%)	1(0.16%)
Id 나물캐다 사랑을 나누는 총각과 처녀	2(0.44%)	17(2.64%)
If 담배를 키워 피우며 청혼하는 총각	12(2.63%)	8(1.24%)
Ka 자형에게 항의하는 처남	2(0.44%)	8(1.24%)
La 저승사자가 데리러오자 한탄하는 사람	4(0.88%)	8(1.24%)
Lb 메밀음식 만들어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여자	7(1.53%)	20(3.11%)
Ma 자식이 없자 곤충을 자식으로 여긴 여자	0(0%)	6(0.93%)

11) 위의 논문, 232쪽.

Mb 쥐가 남긴 밥을 아이와 나눠먹는 사람	10(2.19%)	30(4.66%)
Mc 사람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소	7(1.53%)	2(0.31%)
Md 사람에게 잡힌 동물	14(3.06%)	3(0.47%)
Na 장끼가 콩주워먹고 죽자 한탄하는 까투리	12(2.63%)	3(0.47%)

이를 통해 보면 영남에서는 Aa 시집식구가 구박했을 경우 중이 되는 유형과 Ai 사촌동생에게 시집살이 호소하는 사촌형님 유형이 호남보다 많이 나타나는 것 이외에는 시집살이 관련 노래가 그리 풍부하게 전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시집살이 관련 노래의 경우 호남에서 활발하게 전승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Ab 시집식구가 구박하자 죽는 며느리, Ac 시집식구가 구박하자 한탄하는 며느리, Ae 시집식구가 병어리라고 쫓아내자 노래 부른 며느리, Ag 시누가 옷을 찢자 항의하는 며느리, Ah 사촌형님이 밥을 해주지 않자 한탄하는 사촌동생 등 시집식구가 구박했을 때 나타나는 며느리의 대응 양상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자살을 하거나 한탄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집식구에게 항의를 하는 대담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 것도 호남 서사민요의 특징이다.¹²⁾

영남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유형으로 Ea 오빠에게 부정을 의심받은 동생(쌍가락지) 유형과 Gb 여자의 저주로 죽은 신랑(이사원네 딸딸애기) 유형 등을 들 수 있다.¹³⁾ 반면에 호남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유형으로 Ab 시집식구가 구박하자 죽는 며느리, Ag 시누가 옷을 찢자 항의하는 며느리, Ca 어머니 묘를 찾아가는 딸, Cb 친정부모 장례에 가는 딸, Gd 혼인날 애기를 낳은 신부, Ha 외간남자의 옷이 찢기자 께매주는 여자 유형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각기 영남 또는 호남의 지역유형이라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다.¹⁴⁾ 특히 영남에서는 처녀가 부정을 의심받는 노래나 처녀

12) 위의 논문, 218-219쪽.

13) Gb 여자의 저주로 죽은 신랑 유형의 경우 저주의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다시 Gb-1 처녀의 저주로 죽은 신랑과 Gb-2 본처(자식)의 저주로 죽은 신랑의 하위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4) 줄고, 앞의 논문, 2010, 219-220쪽.

가 남자를 저주하는 노래와 같이 처녀의 구애와 사랑에 관한 노래가 많이 불린다고 한다면, 호남에서는 혼인한 여자가 겪는 고난에 관한 노래와 외간남자와 관련된 부적절한 사랑에 관한 노래가 많이 불린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영남과 호남의 서사민요가 어떻게 소통되었는지는 서로 인접한 영남 서부와 호남 동부의 서사민요 분포양상을 비교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양 지역에서 서사민요 유형의 분포에 있어 서부와 동부가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경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	호남		영남	
	서부	동부	서부	동부
Aa 시집식구가 구박하자 중이 되는 며느리	1.77%	4.02%	5.66%	4.71%
Ab 시집식구가 구박하자 죽는 며느리	6.01%	4.60%	0.77%	0%
Ad 그릇 깨뜨린 며느리	3.89%	1.15%	3.34%	0%
Ae 시집식구가 병어리라고 쫓아내자 노래부른 며느리	1.06%	1.72%	0.26%	0%
Ag 시누가 옷을 찢자 항의하는 며느리	2.83%	1.72%	1.29%	0.78%
Ah 사촌형님이 밥을 해주지 않자 항의하는 사촌동생	3.89%	5.75%	0%	0%
Ai 사촌형님에게 시집살이 호소하는 사촌동생	0.71%	0.57%	1.03%	5.49%
Ca 어머니 묘를 찾아가는 딸	6.01%	2.87%	0.77%	1.96%
Cb 친정부모 장례에 가는 딸	2.83%	6.90%	2.31%	1.96%
Cc 딸의 시집살이를 한탄하는 친정식구	2.12%	0.57%	0%	0%
Ea 오빠에게 부정을 의심받은 동생	0.35%	3.45%	8.48%	11.76%
Eb 오빠가 물에서 구해주지 않자 한탄하는 동생	1.41%	2.30%	3.34%	0.78%
Gb-1 처녀의 저주로 죽는 신랑	1.77%	2.30%	3.08%	3.53%
Gb-2 본처(자식)의 저주로 죽는 신랑	0.71%	0%	2.06%	0.39%
Ge 혼인날 방해를 물리치고 첫날밤을 치르는 신랑	1.06	0.57	2.06	0.78
Ha 외간남자의 옷이 찢기자 께매주는 여자	4.24%	2.30%	0.51%	1.18%
Hc 주머니를 지어 걸어놓고 남자 유혹하는 처녀	1.06%	4.02%	3.60%	3.53%

He 중에게 시주한 뒤 쫓겨나는 여자	1.41%	0%	1.03%	0%
Ib 일하는 처녀에게 구애하는 총각	2.47%	4.02%	4.63%	0%
Ic-1 처녀를 짝사랑하다 죽는 총각	0.71%	4.02%	2.31%	0.39%
Ic-2 사모하는 총각을 중이 돼 찾아가 혼인하는 처녀	0%	0%	0.77%	0%
If 담배를 키워 피우며 청혼하는 총각	4.24%	0%	1.29%	1.18%
Jc 첩이 죽자 기뻐하는 본처	1.06%	0.57%	0%	0%
Ka 자형에게 항의하는 처남	0%	1.15%	2.06%	0%
La 저승사자가 데리러오자 한탄하는 사람	0.35%	1.72%	0.77%	1.96%
Mb 쥐가 남긴 밥을 아이와 나눠먹는 사람	2.47	1.72	2.06	8.63
Na 장끼가 콩 주워먹고 죽자 한탄하는 까투리	3.53%	1.15%	0%	1.18%

여기에서 보면 대부분 호남에서 활발하게 전승되는 유형들은 영남 동부보다는 서부에서 많이 전승되며, 영남에서 활발하게 전승되는 유형들은 호남 서부보다는 동부에서 많이 전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호남에서 활발하게 전승되는 Ab 시집식구가 구박하자 죽는 며느리, Ad 그릇 깨뜨린 며느리, Ag 사촌형님이 밥을 해주지 않자 한탄하는 사촌동생, Ah 사촌형님이 밥을 해주지 않자 항의하는 사촌동생 유형의 경우 호남과 인접해 있는 영남 서부에서는 적은 비중이나마 조사가 된 반면 동부에서는 전혀 조사되지 않았다.

이는 영남 동부 그중에서도 특히 북동부가 산간 지역으로서 영·호남의 다른 지역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예로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 양반문화, 유교문화적 성격이 강해 호남 서사민요 유형을 쉽게 받아들여 전승하기 어려운 문화적 환경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양상이라 생각된다.¹⁵⁾ 이 지역에서 Aa 시집식구가 구박하자 중이 되는 며느리 유형과 Ai 사촌형님에게 시집살이 호소하는 사촌동생 유형 이외에는 시집살이 관련 노래가 활발하게 전승되지 않는 것도 이러한 뿌리 깊은 유교문화적 환경과 무

15) 위의 논문, 228쪽.

관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반대로 영남에서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유형의 경우 호남 동부에서는 비교적 많이 조사되며 호남 서부에서는 많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남에서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Ea 오빠에게 부정을 의심받은 동생 유형의 경우 인접해 있는 호남 동부에서는 3.45%, 서부에서는 0.35% 조사되었으며, Hc 주머니를 지어 놓고 남자 유혹하는 처녀 유형의 경우 호남 동부에서는 4.02%, 서부에서는 1.06% 조사되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형님형님 사촌형님’이라는 같은 관용어구로 시작되면서도 호남에서는 Ah 사촌형님이 밥을 해주지 않자 항의하는 사촌동생 유형이, 영남에서는 Ai 사촌동생에게 시집살이 호소하는 사촌형님 유형이 별도로 전승되고 있는데, 호남의 지역 유형이라 할 수 있는 Ah 유형의 경우 영남에서는 전혀 조사되지 않는 반면, 영남의 지역 유형이라 할 수 있는 Ai 유형은 호남에서도 적게나마 조사된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호남이 상대적으로 영남 서사민요와의 소통에 개방적이었다고 한다면, 영남 그중에서도 특히 영남 동부는 호남 서사민요와의 소통에 폐쇄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영남과 호남의 서사민요는 서로 인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사민요를 통한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도, 영남 동부와 호남 서부 간에는 서사민요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남 서사민요 유형의 경우 호남에 거의 대부분 전승되는 데 반해, 호남 서사민요 유형 중 시집살이와 관련된 일부 유형의 경우 영남에서는 매우 드물게 전승됨으로써 뚜렷한 경계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계는 영남 서부와 동부 사이에서 다시 한번 형성됨으로써, 서사민요의 전승이 크게는 호남과 영남 사이에, 다시 작게는 영남 서부와 동부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을 형성하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유형구조에 나타나는 소통과 경계

이 장에서는 같은 유형의 서사민요가 영남과 호남에서 각기 어떠한 구조적 특징을 지니며 다른 의미를 구현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같은 유형의 서사민요라도 서사단락의 결합 양상에 따라 다양한 하위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가창자가 이중 어느 하위유형으로 부르느냐는 단순한 실수나 기억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대체로 지역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서사민요의 유형구조는 지역적 변별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서사민요의 유형구조가 지역 가창자들의 성향과 가치관, 지역문화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서사민요의 유형은 주인공과 상대인물(대상)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주요 사건이 무엇이나에 따라 나눌 수 있으며, 같은 유형의 서사민요라 할지라도 서사단락의 결합 양상에 따라 다시 몇 가지 하위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서사단락은 서사민요의 사건을 이루고 있는 구성 단위로서 독립된 유형을 결정짓는 핵심단락과 스토리의 풍부한 전개를 이루는 부수단락으로 구분된다. 핵심단락은 그 유형만의 고유한 것이지만, 부수단락은 그 유형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대부분 다른 유형과 공유하기도 한다. 서사민요의 무수한 각편을 어느 유형이라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 유형만의 핵심단락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부수단락은 창자·구연상황·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¹⁶⁾ 여기에서는 이러한 서사단락의 결합에 의한 유형구조와 의미가 지역별로 어떠한 변별성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서사민요의 모든 유형을 대상으로 영·호남의 유형별 차이를 비교하기는 어려우므로, 서사민요 중 잘 알려진 대표적 유형이면서 양 지역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여주는 Ad 그릇 깨뜨린 며느리, Cb 친정부모 장례에 가는

16) 유형을 구성하는 핵심단락과 부수단락에 대해서는 줄고, 「서사민요 <이사원네 만 딸애기> 노래의 전승양상」, 『어문연구』 67, 어문연구학회, 2011. 3.에서 처음 제시하였으며, 이 글에서 서사민요의 다른 유형으로 확대해 분석한다.

딸, Ea 오빠에게 부정을 의심받은 동생, Gb 여자의 저주로 죽는 신랑을 대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¹⁷⁾ 이들 유형은 각기 여성주인물이 현실 속에서 접하는 주변인물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데, 각기 Ad 그릇 깨뜨린 며느리는 시집식구와 며느리의 관계를, Cb 친정부모 장례에 가는 딸은 친정식구와 딸의 관계를, Ea 오빠에게 부정을 의심받은 동생은 오빠와 동생의 관계를, Gb 여자의 저주로 죽는 신랑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서사민요의 주향유층인 평민여성의 현실인식을 고루 살펴보기에 적당한 자료들이라 할 수 있다.

네 유형의 핵심단락과 부수단락, 이들의 결합에 따라 나타나는 하위유형을 각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⁸⁾

유형	핵심단락	부수단락	하위유형
Ad 그릇 깨뜨린 며느리	a 며느리가 깨를 볶다 그릇을 깨뜨린다. β 시집식구가 그릇을 물어내라고 한다.	A 며느리가 시집식구에게 자신의 몸값을 물어내라며 항의한다. B 시집식구가 며느리를 죽이려 한다. C 며느리가 죽는다. (+ 남편이 부모에게	항의형: [α+ β]+ A 죽음형: [α]+ B+ C 복합형(출가): [α+ β] + A+ D

17) 줄고, 「서사민요 <그릇 깨 며느리 노래>의 전승양상과 향유의식」, 『한국민요학』 29, 한국민요학회, 2010. 8.; 「서사민요 <친정부음 노래>의 서사구조와 향유의식」, 『새국어교육』 85, 한국국어교육학회, 2010. 8.; 「<쌍가락지 노래>의 서사구조와 전승양상」, 『어문연구』 65, 어문연구학회, 2010. 9.; 「서사민요 <이사원네 딸애기> 노래의 전승양상」, 『어문연구』 67, 어문연구학회, 2011. 3.에서 각 유형의 전승양상과 구조적 특징, 향유층의 의식 등을 자세히 살펴본 바 있다. 이 글은 이들 유형에 대한 통합적 시각으로 영남과 호남 지역 서사민요의 전승적 특질을 비교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연구의 토대는 선행 논문들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각 하위유형의 서사단락 분석은 자료를 확충하여 새롭게 한 것임을 밝혀 둔다.

18) 핵심단락은 α, β로 나타낸다. 이중 α는 사건의 발단이고, β는 이를 바탕으로 전개된 사건이다. 각편에 따라서는 사건의 발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둘 중에서도 더 핵심적인 단락은 α이다. 부수단락은 핵심단락에 덧붙여져 사건을 풍부하게 확장해나가는 단락으로 A, B, C...로 나타내기로 한다.

		<p>향의한다) D 며느리가 중이 되어 나간다.</p>	
<p>Cb 친정부모 장례에 가는 딸</p>	<p>α 딸이 일을 하다가 친정부모의 부음을 받는다. β 딸이 장례에 가서 한탄한다.</p>	<p>A 여러 가지 일이 생겨 장례에 늦는다. B 친정오빠들이 나무라며 곱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C 막내오빠(삼촌)가 곱문을 열어줘 어머니 몸감장을 잘 해서 보낸다. D 밥을 해주지 않는 올케를 원망한다.</p>	<p>한탄형: [α+β] 꾸중형: [α+β]+A+B 몸감장형:[α+β] +A+B+C 복합형1:[α+β]+ A+B+D 복합형2:[α+β]+ A+B+C+D</p>
<p>Ea 오빠에게 부정을 의심받은 동생</p>	<p>α 여동생이 쌍가락지를 닦고 있다. β 오빠가 여동생의 부정을 의심하자 향의한다.</p>	<p>A 여동생이 죽겠다고 한다. B 자신을 잘 묻고 보살피 달라고 한다. C 연꽃이 피면 자신인 줄 알아달라고 한다.</p>	<p>향의형: [α+β] 죽음형: [α+β]+A 매장형: [α+β]+A+B 환생형:[α+β]+A +B+C</p>
<p>Gb 여자의 저주로 죽는 신랑</p>	<p>α 여자가 몸치장을 하고 남자를 유혹한다. β 남자가 거절하자 여자가 저주한다.</p>	<p>A 예쁘다고 소문난 처녀를 몇 번을 찾아갔다가 겨우 만난다. B 총각이 어려서 부모를 잃고 삼촌집에서 구박을 받으며 자라난다. C 남편(아버지)이 본처(자식)을 버려두고 후실장가를 간다. D 혼인날 신랑이 죽자 신부가 한탄한다. (+ 시택에 가서 처녀과부가 된다.) E 남자 상여가 처녀 집앞에 서자 처녀가 속적삼을 덮어주니 움직인다.(+ 처녀가 시집갈 때 남자 묘가</p>	<p>처녀유혹형: [α], A+[α], B+[α] 처녀저주형: [α+β], A +[α+β], B+[α+β], B +A+[α+β] 신부한탄형: [α+β]+D, A+[α+β]+D, B+[α+β]+D, B+A+[α +β]+D 저승결합형: [α+β]+E, A+[α+β]+E, B+[α+β]+E, B+A+[α+β]+E</p>

		벌어져 들어간다.)	후실장가형: $C + [a' + \beta]$, $C + [a' + \beta] + D$ 복합형: $B + [a + \beta]$ $+ D + E$, $C + A + [a + \beta] + D$, $C + A + [a + \beta] + D$ $+ E$
--	--	------------	---

여기에서 보면 서사민요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단락만으로 매우 단편적인 하위유형을 이루기도 하고, 핵심단락 외에도 여러 가지 부수단락을 결합해 다양하면서도 복합적인 하위유형을 이룬다. 이 하위유형들은 가창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지역별로 뚜렷한 경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는 서사민요의 하위유형이 지역의 문화적 특질이나 지역민의 의식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각 유형이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 서사단락의 결합양상을 보이는지 하위유형별 비율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¹⁹⁾

	호남		영남	
	서부	동부	서부	동부
Ad 그릇 깨뜨린 며느리	향의형 $[a + \beta] + A$ (11편 100%)	향의형 $[a + \beta] + A$ (2편 100%)	향의형 $[a + \beta] + A$ (5편 38.5%) 죽음형 $[a] + B + C$ (2편 15.4%) 복합형(출가형) $[a + \beta] + A + D$ (6편 46.1%)	조사되지 않음(0%)
Cb 친정부모 장례에 가는	한탄형 $[a + \beta]$ (7편 87.5%)	한탄형 $[a + \beta]$ (9편 75%)	한탄형 $[a + \beta]$ (+ A)(2편	꾸중형 $[a + \beta] + A + B$ (

19) 각 하위유형에 속하는 각편의 서사단락 분석은 각주 18)에 나오는 논문들을 참조할 것.

딸	꾸중형[a+β]+ A+B(1편 12.5%)	꾸중형[a+β]+ A+B(3편 25%)	22.2%) 꾸중형[a+β]+ A+B(3편 33.3%) 복합형[a+β]+ A+B+D(4편 44.4%)	2편 40%) 몸감장형[a+β]]+A+B+C(1 편 20%) 복합형[a+β]+ A+B(+c)+D(2 편 40%)
Ea 오빠에게 부정을 의심받은 동생	항의형[a+β](1편 100%)	항의형[a+β]6 1편 100%)	항의형 [a+β](18편 54.5%) 죽음형[a+β]+ A(3편 9.1%) 매장형[a+β]+ A+B(7편 21.2%) 환생형[a+β]+ A+B+C(5편 15.2%)	항의형 [a +β](8편 26.7%) 죽음형[a+β]+ A(4편 13.3%) 매장형[a+β]+ A+B(10편 30.3%) 환생형[a+β]+ A+B+C(8편 26.7%)
Gb 여자의 저주로 죽은 신랑	처녀유혹형 [a] / A+[a](5편 71.4%) 후실장가형 C+[a'+β](2 편 28.6%)	처녀유혹형 [a] / A+[a](3편 75%) 신부한탄형 [a+β]+D (1편 25%)	처녀유혹형 [a] / A+[a] / B+[a](8편 40%) 처녀저주형 A+[a+β](2편 10%) 후실장가형 C+[a'+β](8편 40%) 신부한탄형 A+[a+β]+D / B+A+[a+β] +D(2편 10%)	처녀유혹형 [a] / A+[a](3편 30%) 처녀저주형 A+[a+β](2편 20%) 후실장가형 C+[a'+β](1편 10%) 신부한탄형 B+A+[a+β] +D(3편 30%) 복합형(저승결 합+신부한탄) C+A+[a+β] +D+E(1편 10%)

이 표를 놓고 보면 네 유형의 경우 호남에서는 거의 대부분 핵심단락을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서사를 전개하는 데 비해, 영남에서는 핵심단락

에 부수단락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확장적으로 서사를 전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d 그릇 깨뜨린 며느리의 경우 호남에서는 며느리가 그릇 값을 물어내라는 시집식구들에게 항의하는 것으로 그치는 데 비해, 영남에서는 시집식구에게 항의하는 대신 며느리가 자살을 하거나 중이 되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 노래가 장편화한다. Cb 친정부모 장례에 가는 딸의 경우에도 호남에서는 친정부모 부음을 받은 딸이 친정에 가 한탄을 하는 데 그치는 데 비해, 영남에서는 친정식구들이 늦게 왔다고 꾸중을 하며 친정부모 곱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더 나아가 나중에 막내오빠가 친정부모 곱문을 열어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감상을 잘 해서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Ea 오빠에게 부정을 의심받은 동생의 경우 호남에서는 오빠의 의심에 여동생이 항의를 하는 데 그치는 데 비해, 영남에서는 여동생이 죽음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죽은 뒤 연꽃으로 환생함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Gb 여자의 저주로 신랑이 죽자 한탄하는 신부의 경우에도 호남에서는 처녀가 잘 꾸미고 나와 남자를 유혹하는 데 그치는 데 비해, 영남에서는 남자가 처녀의 유혹을 거절하자 남자를 저주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더 나아가 죽은 남자와 저승 결합을 하며 새신부가 남자의 죽음을 한탄하는 내용까지 덧붙여짐으로써 상당히 다양하고 장편화된 전개를 보여준다.

이상에서 볼 때 호남에서는 핵심단락 위주의 단편적인 구조를 보이는데 비해, 영남에서는 부수단락이 다양하게 결합해 장편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영남에서는 특히 여러 하위유형의 서사단락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복합형이 많이 나타난다. 심지어 호남의 지역유형이라 생각되는 Ad 그릇 깨뜨린 며느리 유형의 경우도 호남에서는 항의형($[a+\beta]+A$)으로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데 비해, 영남 서부에서는 여기에 며느리가 시집식구의 사과를 뿌리치고 중이 되어 나가는 대목이 덧붙음으로써 복합형($[a+\beta]+A+D$)으로 장편화하여 불린다.

이는 호남에서는 Cb 친정부모 장례에 가는 딸 유형과 Ah 사촌형님이 밥을 해주지 않자 한탄하는 사촌동생 유형이 별도로 불리는데, 영남에서

는 이 두 유형이 복합되어 $[a+\beta]+A+B+D$ (복합형1)와 $[a+\beta]+A+B+C+D$ (복합형2)로 서사 전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도 확연히 드러난다. 이때 Ah 유형의 경우 호남에서는 4.60%로 풍부하게 전승되는 반면, 영남에서는 0%로 거의 조사되지 않고 있어 호남의 지역 유형이라 할 만한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호남에서는 이 유형이 독립적으로 짧게 불리는 데 비해, 영남에서는 거의 Cb 친정부모 장례에 가는 딸 유형에 덧붙여져서 불린다는 것이다. Cb 친정부모 장례에 가는 딸 유형의 경우도 영남에서는 2.17% 조사된 반면, 호남에서는 4.38% 조사되고 있어 본래 호남의 지역유형일 가능성이 높으나, 호남에서는 복합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호남에서는 핵심단락 위주의 단편 서사민요가, 영남에서는 핵심 단락에 다양한 부수단락이 결합된 장편 서사민요가 생성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나 우선 두 지역의 문화적 환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호남은 영남에 비해 여성의 유희문화가 발달해, 여성들이 함께 모여 노래를 부르며 즐길 기회가 많았고 이런 자리에서는 긴 노래보다는 짧은 노래를 많이 부르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등당애타령>이나 <강강수월래>를 부르면서도 서사민요의 대목을 돌려가며 부르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설을 짧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비해 영남에서는 남성 중심의 유교문화로 인해 여성이 자유롭게 모여 유희를 즐길 수 있는 자리나 기회가 흔하지 않았다. 대신 오랜 시간 길쌈을 하면서 낮은 소리로 서사민요를 불렀으므로, 긴 사설을 필요로 했다. 서사민요 중 Ba 베짜며 남편 기다리는 아내 유형이 호남에서는 32편(7%) 조사된 반면, 영남에서는 106편(16.46%) 조사된 것도 영남이 호남에 비해 길쌈노동요가 훨씬 더 많이 불렸음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영남의 서사민요가 핵심단락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부수단락이 붙음으로써 사설이 장편화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남에서는 호남과는 달리 장편 여성가사가 활발하게 전승되어 왔는데 여성가사의 장편화 경향이 서사민요에도 어느 정도 영향

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한편 호남의 서사민요는 대부분 향의와 한탄, 유혹 등에서 사건을 마무리함으로써 발단된 사건으로 인한 인물의 즉각적인 감정을 제시하는 데 치중하고 있는 반면, 영남에서는 발단된 사건에 대응하는 인물의 순차적인 행동을 전개해 나가는 데 치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⁰⁾ 이는 앞의 표에서 제시한 Ad 그릇 깨뜨린 며느리 유형, Cb 친정부모 장례에 가는 딸 유형, Ea 오빠에게 부정을 의심받은 동생 유형 모두 호남에서는 향의형과 한탄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영남에서는 Ad 그릇 깨뜨린 며느리 유형의 경우 주인공이 중이 되어 떠나는 출가형, Cb 친정부모 장례에 가는 딸 유형의 경우 어머니의 신체에 염습을 해 장례를 잘 치르는 몸감장형, Ea 오빠에게 부정을 의심받은 동생 유형의 경우 주인공이 죽음을 결행하는 죽음형, 자신의 죽을 곳을 부탁하는 매장형, 마지막에 죽은 후 연꽃으로 환생하는 환생형 등으로 자신의 결백을 끝까지 주장하는 데에 잘 나타난다.

이들 유형 외에도 호남에서 많이 전승되는 유형 중 Ac 시집식구가 구박하자 한탄하는 며느리, Ag 시누가 옷을 찢자 향의하는 며느리, Ah 사촌형님이 밥을 해주지 않자 향의하는 사촌동생 유형 모두 주인공이 상대 인물의 행위에 대해 향의하거나 한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호남 서사민요가 사건의 전개를 길게 이끌어어나가기보다는 인물의 대사를 통해 한탄이나 분노 등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면, 영남 서사민요는 인물의 행동을 통해 감정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곧 호남 서사민요가 대체로 서정적 성향을 많이 드러낸다면, 상대적으로 영남 서사민요는 서사민요의 전형적인 특성을 많이 보

20) 강정미는 「<밭매기 노래>의 사설 특성 연구: 경상남도과 전라남도 비교 분석」, 부경대 석사학위논문, 2008, 70-74쪽에서 경남 <밭매기 노래>에서 화자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을 뿐인데 비해, 전남 <밭매기 노래>에서는 자신의 신세나 처지를 자세하게 말하고 싶어하며, 일의 고됨, 신세한탄 소망 등을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과 함께 다양한 비유적 방법을 통해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

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¹⁾

4. 맺음말

서사민요는 평민 여성들이 주 향유층으로서, 특히 호남과 영남 지역의 평민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불려왔다. 호남과 영남의 서사민요는 같은 평민 여성들이 부른 문학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두 지역의 이질적인 사회적·역사적 환경으로 인해 서로 간에 뚜렷하게 구별되는 전승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두 지역 서사민요의 전승분포 양상과 유형구조적 특성을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비교 고찰하였다.

영·호남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활발하게 전승되는 서사민요 유형으로는 Ba 베짜며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 Bc 진주낭군이 기생첩과 놀자 자살하는 아내, Ia 장식품 잃어버린 처녀에게 구애하는 총각을 들 수 있다. 이 세 유형은 서사민요의 대표적 유형으로 영남과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널리 활발하게 전승되는 ‘광포유형’이라 할 수 있다.

다음 두 지역의 ‘지역유형’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영남에서는 Ea 오빠에게 부정을 의심받은 동생(쌍가락지)과 Gb 여자의 저주로 죽은 신랑(이사원네 만딸애기) 유형을, 호남에서는 Ad 그릇 깨뜨린 며느리, Ae 시집식구가 병어리라고 쫓아내자 노래 부른 며느리, Ag 시누가 옷을 찢자 항의하는 며느리, Ha 외간남자의 옷이 찢기자 꿰매주는 여자 유형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영남에서는 처녀가 부정을 의심받거나 처녀가 남자를 저주하는 등 처녀의 구애와 사랑에 관한 노래가 많이 불린다고 한다면, 호남에서는 혼인한 여자가 겪는 고난이나 외간남자와 관련된 부적절한 사랑에 관한 노래가 많이 불린다.

21) 서사민요는 서사 장르에 속하면서 그 부차적 속성에 따라 전형적, 서정적, 극적, 교술적 성격을 띠게 된다. 서사민요의 장르적 속성에 대해서는 줄지, 앞의 책, 2009, 27-47쪽 참조.

호남에서 활발하게 전승되는 유형의 경우 호남과 인접해 있는 영남 서부에서는 적은 비중이나마 조사가 된 반면 동부에서는 전혀 조사되지 않았다. 반대로 영남에서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Ea 오빠에게 부정을 의심 받은 동생 유형의 경우 인접해 있는 호남 동부에서는 활발하게 전승되는 반면, 서부에서는 거의 전승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호남의 지역유형의 경우 영남 서부까지는 소통이 이루어졌으나 동부까지는 넘나들지 못했다고 한다면, 영남의 지역유형의 경우 호남 동부뿐만 아니라 서부까지 대부분 소통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두 지역 서사민요 중 Ad 그릇 깨뜨린 며느리, Cb 친정부모 장례에 가는 딸, Ea 오빠에게 부정을 의심받은 동생, Gb 여자의 저주로 죽는 신랑 유형의 구조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호남에서는 핵심단락 위주의 단편적 구조를 보이는 데 비해, 영남은 부수단락이 다양하게 결합해 장편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호남의 지역유형이라 생각되는 Ad 그릇 깨뜨린 며느리 유형의 경우도 호남에서는 항의형($[a+\beta]+A$)으로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데 비해, 영남 서부에서는 여기에 며느리가 시집식구의 사과를 뿌리치고 중이 되어 나가는 대목이 덧붙음으로써 복합형($[a+\beta]+A+D$)으로 장편화하여 불린다. 이는 호남이 영남에 비해 여성의 유희문화가 발달해, 여성들이 함께 모여 즐기면서 긴 노래보다는 짧은 노래를 많이 부른 반면, 영남에서는 남성 중심의 유교문화로 인해 여성이 자유롭게 모여 유희를 즐길 수 있는 자리가 흔하지 않은 대신 오랜 시간 길쌈을 하면서 긴 사설을 갖춘 노래가 필요했기 때문에 생겨난 양상이라 생각된다.

이 글은 영·호남 서사민요가 인접 지역 간에 서로 소통하면서도 일부 유형의 경우 두 지역 간에 뚜렷한 경계를 이루면서 지역 고유의 전승적 특질을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서사민요의 형성과 전승이 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밝히지 못한 점이 한계로 남는다. 앞으로 영·호남 서사민요뿐만 아니라 전국 서사민요의 전승 양상에 대한 거시적인 비교 고찰을 계속함으로써 한국 서사민요의 전승에

나타나는 수수께끼를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글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지역 서사민요의 내용적 특질과 향유의식 비교에 대해서도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영남구전문요자료집』 1-3, 조희웅·조흥욱·조재현 편, 도서출판 월인, 2005.
- 『한국구비문학대계』 5-1~5-7(전북), 6-1~6-12(전남), 7-1~7-18(경북), 8-1~8-14(경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9.
- 『한국민요대전』 경남편, 경북편, 전남편, 전북편(주)문화방송, 1993-1995.
- 『호남구전자료집』 1-8, 조희웅·조흥욱·조재현 편, 도서출판 박이정, 2010.
- 강등학, 「〈모심는소리〉와 〈논매는소리〉의 전국적 판도 및 농요의 권역에 관한 연구」, 『한국민속학』 38, 한국민속학회, 2003. 15~91.
- 강정미, 「〈밭매기 노래〉의 사실 특성 연구: 경상남도과 전라남도 비교 분석」, 부경대 석사학위논문, 2008. 8.
- 권녕철, 『규방가사연구』, 이우출판사, 1980.
- 권오경, 「영남민요의 전승과 특질」, 『우리말글』 25, 우리말글학회, 2002, 217~241쪽.
- , 「영남권 민요의 전승과 특질 연구: 전이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29, 우리말글학회, 2003, 213~245쪽.
- 김기현·권오경, 『영남의 소리』, 태학사, 1998.
- 김연순, 「조선여성의 유교적 여성상 내면화 연구: 여훈서와 규방가사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제8권 1호, 한국여성연구소, 2008, 1~42쪽.
- 김익두, 『전북의 민요』, 전북애향운동본부, 1989.
- , 「전북 민요의 전반적 성격과 지역적 특성」, 『국어국문학』 116,

- 국어국문학회, 1996, 127~156쪽.
- , 「민요의 시학과 정치학: 전북지역 노동요의 공연학적/민족음악학적 해석」, 『한국민속학』 30, 한국민속학회, 1997, 23~48쪽.
- 나승만, 「전남지역의 들노래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류경자, 「무가 <당금애기>와 민요 ‘중노래·만말애기’류의 교섭양상과 변이」, 『한국민요학』 23, 한국민요학회, 2008, 329~355쪽.
- , 「남해군 전승민요의 현장론적 연구」, 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서영숙, 『시집살이노래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1996.
- , 『한국 서사민요의 날실과 씨실: 우리 어머니들의 노래』, 도서출판 역락, 2009.
- , 「영남 지역 서사민요의 전승적 특질」, 『고시가연구』 26, 한국고시가문학회, 2010, 207~242쪽.
- , 「서사민요 <그릇 깬 며느리 노래>의 전승양상과 향유의식」, 한국민요학 29, 한국민요학회, 2010. 8., 161~186쪽.
- , 「서사민요 <친정부음 노래>의 서사구조와 향유의식」, 『새국어교육』 85, 한국국어교육학회, 2010. 8., 671~696쪽.
- , 「<쌍가락지 노래>의 서사구조와 전승양상」, 『어문연구』 65, 어문연구학회, 2010. 9., 207~237쪽.
- , 「서사민요 <이사원네 만말애기> 노래의 전승양상」, 『어문연구』 67, 어문연구학회, 2011. 3., 63~89쪽.
- 성기련, 「율격과 음악적 특성에 의한 장편 가사의 갈래 규정 연구」, 『한국음악연구』 28집, 한국음악학회, 2000, 263~291쪽.
- 이정옥, 『내방가사의 향유자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1999.
- 정종환, 「산청지역 서사민요 연구」,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2004.
- 정혜인, 「경남 지역 서사민요의 유형적 특징과 교육적 적용」, 부산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조동일, 『서사민요 연구』, 계명대 출판부, 1979(증보판).

지춘상, 『전남의 민요』, 전라남도, 1988.

최정락, 「영·호남 문학의 특성 고찰: 양 지역 조선조 문학의 대비를 통한」, 『어문학』 50, 한국어문학회, 1989, 301~326쪽.

최현 외 3명, 「부산·경남 지방 전통민요 조사 연구: 기존학술연구 및 문화적 배경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17, 287~310쪽.

한국구연민요연구회, 『한국구연민요』 연구편, 자료편, 집문당, 1997.

황의중, 「경남 지역 민요의 음악적 특징」, 『한국민요대전』 경남편, (주) 문화방송, 1994, 32~37쪽.

투고일 : 2011년 6월 27일, 심사 : 2011년 7월 20일~ 8월 12일, 게재확정 : 8월 16일

<Abstract>

Comparison of Transmission Aspects of Folk ballads in Yeongnam and Honam District

Suh, Young-sook

This paper investigated the transmission aspects of folk ballads in Yeongnam and Honam district comparatively. I surveyed 1,101 versions (644 versions in Yeongnam district, 457 versions in Honam district) of folk ballads and the database of them in Yeongnam and Honam district. Yeongnam and Honam district have the most abundant versions of folk ballads in Korea.

The most briskly transmitted versions both in Yeongnam and Honam district was the Ba type (A weaving woman wait for her husband). The second one was the Bc type (A wife who suicide because of her husband's dissipation) the third one was the Ia type (A maiden who lose her pigtail ribbon). These are recognized as the nationwide types. However, the Ea type (A sister who suspected from the unchastity by her brother) and the Gb type (A bridegroom who died of a woman's curse) are recognized as the regional types of Yeongnam district. In the contrast of that, the Ad type (A daughter-in-law who break a vessel), the Ae type (A daughter-in-law who expelled from her parents-in-law), the Ah type (A daughter-in-law who protest to her sister-in-law) and the Ge type (A bride who gave a birth on her wedding day).

Especially the Sijipsarinore (Folk ballads about the woman's sufferings from her husband's family) including the type Aa which was handed down

the most briskly in the Honam district. The reason of these phenomena was that Yeongnam district have been the authentic confucian society. The married women could not sing freely.

I divided Yeongnam and Honam district into 2 cultural regions separately, the west region and the east region. Folk ballads were handed down the more briskly in the west of Yeongnam district. On the contrary, the least folk ballads were handed down in the east region of Honam district. I could find that the folk ballads about the woman's sufferings from her husband's family in the Honam and the west of Yeongnam region were handed down mostly.

I analysed the structure of 4 types that show different aspects. As the result, I found that the subtypes in most cases are constituted with the core paragraphs in Honam district. On the contrary, the subtypes in most cases are constituted with the combination of core paragraphs and auxiliary paragraphs in Yeongnam district. Moreover, the mixed types between Yeongnam and Honam were found mostly in the west of Yeongnam district. Those were results of the cultural exchange between Yeongnam and Honam districts. In order to confirm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more expended surveys to the whole districts should be continued.

Key-words : folk ballad, Yeongnam district, Honam district, transmission aspect, type, subtype, nationwide type, regional type, core paragraph, auxiliary paragraph